

# 지역 유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특별한 소풍'

## 94세 광여남 할머니 오늘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서 조대여고 학생들과 점심...편지 낭독·카네이션 증정도

광여남(94) 할머니가 봄 소풍을 간다. 날짜는 3일. 장소는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부근 잔디밭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수요 정기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광주나비'와 조대여고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광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봄 소풍을 준비했다. 젊은 시절 일본군에 붙들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할머니를 잠시나마 담양 집에서 모시고 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광 할머니는 광주·전남에 생존한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할머니는 16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후 2004년에서야 귀국했다. 고향에 돌아와 평온한 일상을 보낸 것도 잠시. 지난해 12월 30일 폐암 4기를 판정받은 것이다. 고향에 거동마저 불편한 할머니는 효심 지극한 조카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바깥 구경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계셨다고 한다.

광주나비는 어버이날도 돌아오고 매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로 보여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갈라져 봄 소풍을 기획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조대여고 학생들도 "할머니의 봄 소풍을 우리가 즐겁게 해드리겠다"며 나섰다. 광주나비 활동에 열

성적으로 참여해온 김은정 조대여고 교사(역사)가 봄 소풍 취지를 알리며 제자들을 이끌고 오기로 한 것이다.

조대여고 학생 17명은 '잃어버린 시간 지켜드릴게요', '당신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고 적힌 나비모양의 노란 플래카드를 가져와 할머니를 응원하기로 했다.

직접 손 편지를 써서 할머니에게 읽어드린 후 가슴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예정이다. 소풍이면 빠질 수 없는 맛은 도시락, 시낭송, 노래부르기 등 장기자랑도 준비했다.

광주나비는 3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광여남 할머니와 함께하는 봄 소풍'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2일 밝혔다. 1시간 앞선 정오에는 같은 장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광주 수요시위'가 진행된다.

수요시위는 이전처럼 일본을 향해선 "집락과 식민지배를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는 외침을, 우리 정부를 향해선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후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이날은 당사자인 광 할머니가 참석하는 게 이전과는 다르다고 광주나비는 강조했다. 위가 끝나면 평화의 소녀상 주변 잔디밭에서 소풍이 시작된다.

김민경 광주나비 활동가(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는 "지난번 수요시위 때는 비가 오고 광여남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를 진행했었다"며 "이번 수요시위 때는 광여남 할머니가 따뜻한 봄 햇살의 기운을 느껴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며, 생존자는 38명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야생진드기 환자 발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열과 오한 증상으로 광주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환자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SFTS 양성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읍에서 국내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SFTS가 처음 검출된 지난 2013년 5건을 시작으로 2014년 1건, 2015년 9건, 2016년 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자는 야생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월 주로 발생하고,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채희종기자 chae@



예비 군인들 병역판정검사

2일 오후 첫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광주시 동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대상자들이 혈압 측정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장현서)은 올해 광주·전남지역 검사대상자는 2만4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남구 연쇄 방화범 붙잡아

광주남부경찰청은 2일 쓰레기 보관소에 불을 지르는 등 3차례에 걸쳐 동시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황모(6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새벽 3시28분께 광주시 남구 덕남동의 버스정류장 쓰레기 보관소에 불을 지르는 등 쓰레기 터미와 폐자재가 방치된 곳을 포함한 3곳에 가차 없이 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2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이 일대의 CCTV를 분석해 황씨가 방화하는 것을 확인해 황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직접 치우거나 소각해야 직성이 풀려 자신의 옆에 있는 쓰레기터미를 지나치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전남 학교 운동장 8월까지 트랙 교체 마무리

목포 이로초 학생들은 오는 21일이 넘어야 운동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우레탄 트랙을 마사토로 바꾸는 공사가 이날 완료되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 송일고, 전남여상, 고려고, 서석중, 광덕고 등 5개 학교는 설계가 진행되면서 여태껏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광주·전남 학교의 우레탄 트랙·운동장 교체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운동장을 보유한 54개 학교 중 30곳만

우레탄 교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17개 학교는 5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송일고 등 5개 학교의 경우 8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어서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난 뒤에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고, 비아중의 경우 육상부 등 운동부 연습을 위해 친환경 우레탄으로 교체를 원하고 있어 마사토로 전면 교체하려는 교육청 정책과 달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남교육청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된 174개 학교 중 41곳(초 25·중 8·고 7·특수 1)만 우레탄 트랙을 마사토로 바꾸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개 학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89개 학교는 공사 계약 단계 과정이다.

전남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부 지원금이 늦게 내려온데다, 폐기물 검사 및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 말 공사가 모든 학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달뜨기 12:04  
해질 19:20    달지기 01:12

나들이 하기 좋은 석가탄신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2/28	보성	맑음	9/24
목포	맑음	13/24	순천	맑음	10/25
여수	맑음	14/23	영광	맑음	9/26
나주	맑음	8/27	진도	맑음	13/23
완도	맑음	14/22	전주	맑음	11/28
구례	맑음	6/26	군산	맑음	11/25
강진	맑음	10/25	남원	맑음	7/27
해남	맑음	10/24	홍산도	맑음	12/20
장성	맑음	8/27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동~남동	0.5	남동~남	0.5
남부	남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남해	남바다(동)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남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5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매우높음**
- 피부질환: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58	07:40
여수	간조	만조
	08:44	02:23
	21:01	14:59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	☁	☁	☀	☁	☁	☀
13/22	16/26	15/21	10/24	12/26	14/21	15/25

## 광주·전남 불법 총기 11점 회수

### 무기 701점 자진 신고

경북 경산 농협 총기 강도 사건으로 총기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공기총 9정과 가스발사총 2정 등 불법 총기 11점이 신고됐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지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기 11정 등 불법무기 701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공기총 4정과 가스발사총 1정 등 총기 5점, 실탄 155발, 포탄 3발, 도검 1개, 분사기 9개 등 총 173점의 불법무기가 신고됐다.

전남에서는 공기총 5정과 가스발사총 1정이 회수됐다. 또 실탄 485발과 도검 5

점, 분사기 11점 등 총 528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했다. 실탄의 경우 소지허가 기간을 넘긴 뒤에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5월 한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국방부·관세청·환경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사이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의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양식장 국고보조금 6억 가로챈 3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손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손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46)씨와 허위 계약서를 만든 공사업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14년 7월 여수에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공사 및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6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던 손씨는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양식장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김씨 등과 짜고 부풀린 공사대금 계약서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보 65 since 1952

# 광주일보 65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광주일보 창사 65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촌 음악회      원우의 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5기 개강식

Leaders Academy